

음악의 영향력 (3) ✎

사탄의 전략은 고도화되어 드디어 찬송에까지 파고 들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아예 찬송을 못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찬송을 부르게 하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내용'보다 '그릇'에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집회 시작 전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실로암'이라는 찬송을 몇 번씩이나 열정적으로 부르기에 제가 나중에 단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조금 전에 부른 그 노래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노래를 그렇게 신나게 부르셨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가사야 어찌되었든 멜로디가 신나고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불러댄다는 것 말입니다.

특히 앞 회에서도 강조 드렸듯이 음악의 요소 중 우리의 감정을 가장 민감하게 자극하는 것이 '리듬'으로서, 리듬 중에서도 강력한 비트와 빠른 템포의 반복적 리듬은 우리의 감정만을 지나치게 흥동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빠른 템포의 찬송을 계속 이어서 손뼉까지 쳐가며 부를 경우 우리는 그릇에 담긴 내용보다는 엉뚱하게도 그릇에 더 주목하게 되고 그릇(음악)만을 즐기게 될 위험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리듬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리듬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멜로디나 화음이 가사의 전달을 방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의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멜로디의 '새 찬송'에 심취하여 마치 유행가처럼 신나게 부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싫증을 내고 내팽개치게 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음악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두지 않으면 자칫 사탄이 노리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음악이라는 것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잘 사용하면 매우 유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음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용덕/ 종합문화선교 찬미 대표간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발행인.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제공

<http://isena.com/>